

# 화곡(華谷) 황택후(黃宅厚) 한시 연구\*

구본현\*\*

- I. 서론
- II. 생애와 이력
- III. 문학관과 문학적 특징
- IV. 결론

## <국문초록>

황택후(黃宅厚)는 조선 숙종·영조 연간에 활동한 경아전 출신의 위항시인이다. 젊은 시절에 최창대(崔昌大), 이하곤(李夏坤) 등 명유(名儒)와 교류하였고 서사(西社) 등 위항인의 시사(詩社)에도 참여하였다. 금위영의 서리가 된 이후 줄곧 지방관을 수행하며 외방(外方)에서 근무하였고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여 공적을 쌓기도 하였다.

경아전 집안 출신인 까닭에 황택후는 어렸을 때부터 사대부 가문에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사대부 문인 및 위항시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능문능리(能文能吏)’의 능력을 갖춰 사대부들의 인정을 받았던 경아전 출신 위항인들이 의역(醫譯) 출신의 위항인들을 대신하여 시단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황택후의 생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택후보다 한 세대 앞선 김창흡, 홍세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천기론(天機論)과 진시론(眞詩論)은 위항문학 활성화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학관은 황택후뿐만 아니라 그와 교류한 최창대, 이하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황택후의 영물시에는 주변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천리(天理)를

\* 이 논문은 2019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공모형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깨우치고 이를 수신(修身)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접물(接物)에서 비롯하는 솔직한 감정과 인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을 통해 ‘진시(眞詩)’를 목적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시(詩)』, 한위(漢魏)의 고시, 성당(盛唐)의 악부시(樂府詩) 등을 진시의 모범으로 삼고 의고(擬古)를 통해 그 경지에 도달하려는 복고(復古)의 방법이 강조되었는데 황택후의 문학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황택후의 문학에는 위항문학의 일반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불평음(不平音)과 협기(俠氣)의 표출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황택후가 사대부 관료들의 인정을 받아 사회적 성공을 거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애를 외방에서의 안찰(按察) 활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호기(豪氣)나 의기(意氣)를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화곡(華谷), 황택후(黃宅厚), 한시(漢詩), 위항(委巷), 여항(閭巷), 중인(中人), 천기(天機), 진시(眞詩), 복고(復古)

## 1. 서론

황택후(黃宅厚, 1687~1737)는 숙종과 영조 연간에 활동한 경아전(京衙前) 출신<sup>2)</sup>의 위항시인이다. 평민문학, 위항문학, 여항문학, 중인문학 등 용어는 다르지만 양반 사대부를 제외한 계층의 문학은 근대 이후 한문학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이들 연구는 위항문학의 역사적 진개를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로서 유흥 중심의 문예 취향, 음악·서화 등 타 예술과의 연계, 신분제 모순으로 인한 불평음의 토로 등을 도출해내었다. 이를 통해 작가층의 확대와 새로운 문예 미학의 제시라는 조선 후기 한문학의 새로운 변화 양상이 규명되었다고 하겠다.<sup>3)</sup>

2) 吳泰賢, <華谷集序>, 『華谷集』(한국문집총간 209), 7면: “昌原黃君宅中, 家椽史也.” ‘椽史’는 ‘掾史’의 誤記로 보인다.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3) 관련된 연구 가운데 몇몇 단행본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자균, 『朝鮮平民文學史』, 文潮社, 1948; 정후수, 『朝鮮後期 中人文學 研究』, 깊은샘, 1990; 천병식, 『朝鮮後期 委巷詩社 研究』, 國學資料院, 1991;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허경진, 『조

그런데 중인 중심의 위항문학 연구는 시사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으며 홍세태, 정내교, 천수경, 장훈 등을 제외하고는 개별 작가에 대한 상론이 소략한 형편이다. 황택후 또한 기존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인물로서 역관 중심의 위항문학이 경아전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활동한 작가로 간략하게 언급된 것이 전부일 뿐이다.<sup>4)</sup>

조선 후기의 위항문학은 홍세태, 임준원 등 의역(醫譯) 출신의 기술직 중인이 중심이 된 낙사(洛社)에서 비롯하며 한 세대 뒤에 정내교가 등장하여 그 맥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말엽부터는 경아전 출신이 중심이 된 시사가 등장하며 천수경과 장훈의 옥계시사(玉溪詩社)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황택후는 낙사의 뒤를 이어 경아전 중심의 시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활동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항문학의 중요한 변화기에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택후에 대한 개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작품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인 덕순(德諄)이 편찬한 『화곡집(華谷集)』에는 황택후가 지은 천여 편의 시문 가운데 고작 167편의 시문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sup>5)</sup> 둘째는 시사 활동을 중심으로 위항문학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사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한 인물만이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다. 황택후는 젊은 시절에 시사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금위영 서리에 나아간 뒤로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황택후의 한시에 주목하는 까닭은 먼저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한 당대의 평가가 높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황택후의 시는 『소대풍요(昭代風謠)』와 『풍요속선(風謠續選)』에 여러 편 선발되었고 『삼명시화(三溟詩話)』에서도 시 2편을 소개하며 시명(詩名)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sup>6)</sup> 특히 당대 문단의 명망 높은 사대부 문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구상(具庠)은 『화곡집』의 서문에서 황택후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선 위항문학사』, 태학사, 1997; 차용주, 『한국 위항문학 작가 연구』, 경인문화사, 2003.

4) 강명관의 연구에 황택후의 가계, 교육, 시사 활동 등의 주요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5) 黃德諄, <家狀>, 『華谷集·附錄』(총간 209), 46~47면: “千有餘數之詩文, 只有百六十七首.”

6) 姜汝欽, 『三溟詩話』(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소명출판, 2012: “黃宅厚, 閭巷間人, 少從崔崑倫學, 有詩名.”

(황택후가) 지은 시는 흩어지고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으나 격조가 우아하고 말이 순탄하며 경물을 묘사한 것이 헛되지 않고 용사(用事)가 조야하지 않다. 이 167편의 시를 보면 타고난 성품이 담박하고 노력과 재주가 풍부함을 알 수 있으니 스스로 일어난 호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동방의 이달과 홍세태 같은 이들은 그때의 이름난 분들과 뛰어난 분들의 인정 아래 (시를) 주고받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칭송한다. 마찬가지로 황택후도 최창대에게 배워 이름난 사대부의 문을 드나들었는데 (그들과) 주고받은 시가 적을 뿐이다. 한 잔 술에 시 한 수를 지었으나 산과 강을 마주하였을 때나 홀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지은 것이 많다.<sup>7)</sup>

위의 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첫째, 황택후의 한시가 당대를 대표하는 사대부 문인인 최창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황택후는 또한 이하곤, 구택규, 오광운 등의 명사들과 교유함으로써 그 인품과 학식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한 세대 앞의 홍세태, 동시대의 정내교 또한 이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만 이들 역관 출신의 중인들은 대부분 개인적 역량으로 사대부의 추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아진 출신의 중인들은 실제 업무의 영역에서 사대부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위항문학의 주역으로 집단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황택후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황택후 한시의 격조, 묘사, 용사 등을 칭송하면서 그것이 타고난 성품과 재주, 꾸준한 노력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sup>8)</sup> 이는 사람 됨됨이와 문학적 성과를 동계의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해당하는데 사대부 문인들이 위항인의 문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천기론’이나 ‘진시론’과의 연관성을 상기시킨다. 황택후가 시의 본래 면목으로서 천기(天機)와 진시(眞詩)를 강조한 것과 그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의고(擬古)를 선택한 까닭을 위항문학의 역사적 변모와 연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7) 具庠, <華谷集序>, 『華谷集』(총간 209), 3면: “所著詩, 散軼, 存者無幾, 而其調雅, 其語順, 寫景而不虛, 用事而不野. 觀此百六十七篇, 而可知索性澹泊, 用工該瞻, 豈不可謂自樹立之豪傑乎! 我東孫谷, 柳下之類, 得當時名公巨匠之推許酬酢, 至今人皆稱之. 如黃君者, 受學於崔昆崙, 出入於名士大夫之門, 而唱和者少, 一觴一咏, 多在於登山臨水, 離羣作客之時.”

8) “自樹立”은 사마천이 자신을 평가한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漢 司馬遷, <報任少卿書>, 『古文觀止』 권15: “特以爲智窮罪極, 不能自免, 卒就死耳. 何也? 素所自樹立使然也.”

즉 황택후의 한시는 조선 후기에 위항문학이 하나의 집단적 문학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그 주도 세력의 등장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면모를 보인다. 개별 작가에 대한 분석만으로 위항문학 전체의 역사적 전개 양상과 그 추동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지만 구체성에 대한 모색이 쌓임으로써 보편성에 대한 귀납이 가능한 만큼 위항문학의 주역이었던 개별 작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황택후의 생애와 이력을 정리하여 그 주요한 특징을 추출하고 그가 지닌 문학관 및 창작 성과와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위항문학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다.

## II. 생애와 이력

『화곡집』에는 둘째 아들 덕순이 황택후의 생애와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연보(年譜)>와 <가장(家狀)>이 실려 있다. 이는 황택후의 부인인 밀양 박씨가 평소엔 언문으로 남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sup>9)</sup> 황택후의 행적에서 주목할 것은 ① 대대로 경아전을 지낸 집안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반가의 자제와 다를 바 없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 ② 일찍부터 시 창작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 ③ 학식과 글재주로 당대의 유명한 사대부 및 위항인들과 교류하였다는 점, ④ 가업을 계승하여 금위영 서리에 나아간 이후 이인좌의 난에 공을 세우고 안찰사를 수행하며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는 점 등이다. 다소 번다한 면이 있겠지만 황택후에 대한 기존연구가 소략한 만큼 <연보>와 <가장>을 바탕으로 삼아 그 생애와 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수학(修學) 과정과 교유의 양상

황택후의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중국의 학사(學士)였던 황락(黃洛)이 바

9) 黃德諱, <家狀>, 『華谷集·附錄』(총간 209), 44면: “嘗以諺書, 輯錄先考平日事行而藏之, 出示不肖曰: ‘汝幼而孤, 家君言行, 未能詳知, 此可攷也.’”

다를 건너와 평해(平海)에 살게 되었는데, 그 아들 중의 하나가 창원에 본적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창원 황씨의 시조는 고려 때 시중동평장사를 지낸 창원백(昌原伯) 황충준(黃忠俊)이다. 5대조인 절충부호군 대(岱)가 서리(胥吏)에 뽑히면서 한양에 살게 된 뒤로 경아전 집안이 되었다. 부친 상구(尙耆)는 선혜청 서리를 지냈고 모친은 충순위(忠順衛) 애립(愛立)의 딸인 이씨(李氏)이다.

황택후는 1687년(숙종13) 10월 21일 한성의 중부동(中部洞)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택중(宅中)이었고 자는 자화(子和), 호는 화곡(華谷)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황택후는 다섯 살 때 『천자문』을 시작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여섯 살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 반드시 제사에 참여하였다. 일곱 살에 이르러 『동몽선습』을 배우게 되었는데 매일 4~5줄씩 익히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여덟 살에 『사략』을 배웠는데 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책 읽기만 좋아하였다. 아홉 살 이후로는 부모가 먼저 침식(寢食)을 해야만 뒤따라 침식을 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열 살 때 『통감』을 배우고 당시(唐詩)를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열두 살 때 『소학』을 배웠다.

경아전을 ‘도필리(刀筆吏)’라 하듯이 ‘능문능리(能文能吏)’가 중요한 자질이긴 하였으나 황택후가 받은 교육은 사대부가의 자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시 짓는 것을 좋아하여 이른 시기에 성취를 보였다는 점이다.<sup>10)</sup> 열두 살 때 부친을 따라 남산(南山)에 올라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민가는 땅에 가득하고 백성들 모두 부유한데  
성곽 두른 꽃나무들이 절기 따라 무성하네.  
이로써 태평성세의 모습을 알겠거니와  
금빛 안장의 백마가 버드나무 거리를 지나네.  
撲地閭閻民富庶, 連城花木節繁華.  
從知盛世昇平象, 白馬金鞍楊柳街.

번성한 한양 도성의 모습을 소재로 삼은 시이다. “撲地閭閻”은 백성들의 살림집들이 다닥다닥 땅에 붙어 있다는 뜻인데 한양이 지닌 계획도시로서

10) 黃德諄, <年譜>, 『華谷集·附錄』(총간 209), 42면: “丙子 公十歲, 學『通鑑』, 兼讀唐詩, 間習字… 甲申 公十八歲, 學『書傳』, 尤工詩律.”

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sup>11)</sup> 귀한 집 소년을 가리키는 “白馬金鞍”에다 그녀를 상징하는 버드나무를 결합하여 태평성대의 풍류를 묘사한 것은 악부시에 흔히 보이는 관습적인 표현이다. 이 시를 본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고 하나 용사가 많고 수사가 진부하며 각 구절의 의미가 중복된다는 단점을 보인다. 도식적인 의고에 따른 작위적인 느낌이 강하여 재주를 뽐내고 싶었던 어린 시인의 욕심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후 황택후는 1701년 15세 때 최창대(崔昌大, 1669~1720)에게 나아가 『맹자』를 배우게 된다. 최창대는 당시에 수찬, 헌납, 이조좌랑 등 요직을 맡은 촉망받는 관료였는데 소론의 영수인 최석정의 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런 인물의 문하에 드나들었다는 것은 황택후의 가문이 대대로 사대부가와 밀접하게 인연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 최창대가 “단 샘물은 근원이 없고 향기로운 풀은 뿌리가 없다”는 말로 황택후를 칭찬하고는 자제들과 함께 노닐게 한 것<sup>12)</sup>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집안의 귀천을 떠나 대성할 재목이라 높이 평가한 것은 중인들의 위상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항문학이 활발해진 주요한 원인으로 높은 교육열이 언급되는데<sup>13)</sup> 황택후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가장 이른 시기에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황택후는 19세 때 전정(前正) 박창지(朴昌枝)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20세 때 이하곤(李夏坤, 1677~1724)과 구택규(具宅奎, 1693~1754)와 교유하였다. 명문가 출신인 이하곤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으며 흥세태와도 교유하였다. 젊은 시절 황택후의 문학 활동에 이하곤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1) 唐 王勃의 <滕王閣序>에 보이는 “閨閣撲地, 鍾鳴鼎食之家; 舳舻迷津, 青雀黃龍之舳”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鄭道傳, <進新都八景詩·諸坊棋布>, 『三峯集』(총간 5) 권1, 298면: “第宅凌雲屹立, 閨閣撲地相連. 朝朝暮暮煙火, 一代繁華晏然.”

12) 黃德諱, 앞의 글, 같은 곳: “辛巳, 公十五歲, 冠. 謁昆崙崔公昌大受『孟子』. 先生亟稱之曰: ‘體泉無源, 芝草無根, 使與子弟遊.’” 최창대의 말은 東晉 虞預의 『會稽典錄』에 나오는 “天之福人, 不在貴族, 芝草無根, 體泉無源.”을 인용한 것이다.

13) 안대회, 『조선 후기 여항문학의 성격과 지향』, 『漢文學報』 제29집, 우리한문학회, 2013, 273~298면.

금계의 별장으로 가시는 담헌 이공과 이별하며

처음 뵈었을 때 피꼬리 시절이었는데  
 헤어질 땐 저물녘 매미 시절이구나.  
 가을바람 솔솔 부는데  
 필마로 훌쩍 떠나시네.  
 푸른 연못에 연꽃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 달이 어여쁘구나.  
 그대를 머물게 할 수 없으니  
 문득 마음이 아득해지네.  
 會偶初黃鳥, 分携忽暮蟬  
 秋風吹嫋嫋, 匹馬去翩翩  
 碧沼荷猶淨, 晴天月可憐  
 留君嗟未得, 心緒却蒼然<sup>14)</sup>

이하곤이 충청도 진천(鎭川)의 금계(金溪)에 있는 별장으로 떠나는 것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피꼬리가 우는 봄에 만났다가 여름이 저무는 시절에 이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하였다. 연꽃과 달빛은 모두 이하곤의 성품을 상징하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아득할 정도로 마음이 허전하다고 하였다. 관습적인 표현이지만 이하곤에 대한 존경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sup>15)</sup>

이하곤은 최창대의 막내 외숙인 이인엽(李寅燁)의 장남이다. 사촌 관계인 최창대와 이하곤은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황택후는 최창대와의 인연으로 이하곤과도 교류하게 된 것 같다.<sup>16)</sup> 정내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이하곤을 통하여 황택후와 정내교의 교류가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14) 黃宅厚, <奉別澹軒李公\_夏坤\_金庄之行>, 『華谷集』(총간 209) 권1, 13면.

15) 이하곤이 차운한 시는 다음과 같다. 李夏坤, <次宅中韻, 留別諸君>, 『頭陀草』(총간 191) 冊六, 291면: “曲沼紅蕖月, 高樓碧樹蟬. 新詩互酬答, 勝集幾聯翩? 病馬長途別, 孤虫此夜憐. 相看各無語, 燈火與蕭然.”

16) 최창대의 생애와 교유에 대해서는 성범중, 『昆侖 崔昌大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5~40면 참조.

17) 鄭來僑, <澹軒李公\_夏坤\_將歸金溪, 賦此以別>, 『浣巖集』(총간 194) 권1, 499면: “故人將欲

황택후는 32세에 금위영 서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위향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향문학이 활성화된 데에는 사대부에 버금가는 학문과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황택후 또한 이러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촌은 유희경의 정려일에 참석한 자리에서 삼가 학사 오광운의 운을 잇다

어찌 천하의 선비가 되길 기약했겠는가?  
 천한 집안 출신이었으니.  
 (그러나) 예학은 하나라와 상나라를 따랐고  
 시인의 명성은 사대부에 버금갔네.  
 살아서는 국모를 알았고  
 죽음 앞에서도 권력 있는 신하를 두려워하지 않았네.  
 어진 임금의 시대에 빛을 내려 포상하시니  
 이 백성들 새로워지리라.  
 寧期天下士? 出自褐衣人.  
 禮學徵商夏, 詩名廁搢紳.  
 生唯知國母, 死不畏權臣.  
 聖世光褒贈, 斯民可作新.<sup>18)</sup>

1732년 즈음에 유희경의 4세손인 덕창(德昌)의 상언(上言)으로 사후 96년이 지난 유희경(劉希慶)에게 효자로서의 정려가 하사되었다.<sup>19)</sup> 오광운(吳光運), 조문명(趙文命) 등의 사대부들과 여러 위향인들이 이를 기념하는 시를 지었는데 46세인 황택후도 이에 동참하였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門人)인 남언경(南彦經)에게 예학을 배워 장례에 해박하였던 것, 박순(朴淳)에게 당

去, 朝日照柴門. 臨行無限意, 楚楚兩三言.”

18) 黃宅厚, <謹次劉村隱希慶旣閭日席上吳學士光運韻>, 『華谷集』(총간 209) 권1, 14면.

19) 趙文命, <劉村隱希慶旣閭後, 次諸益韻并序>, 『鶴巖集』(총간 192) 冊二, 460면: “村隱劉翁, 閭巷人也. 而深於禮樂, 又□於詩律, 一時名公卿多從遊唱酬, 觀於枕流臺錄可知已. 所謂枕流臺, 卽翁所居, 而有老松清流之勝, 在金虎門傍禁場外. 後入爲揔府, 其松至今存而蔭一庭云. 余於翁不惟愛其詩而想其人, 每奇翁對爾瞻小人有母之語, 未嘗不三復歎賞. 以爲此一節, 直可書之史冊無愧, 而其時史臣之書不書, 未可知, 是可恨也. 翁之沒後九十六年, 因其四世孫德昌上言, 以孝旌其門, 盖特典也. 諸君子作詩以榮之, 德昌袖其詩來, 要余屬和甚懇, 不得已次其韻, 又書此以歸之.”

시를 배워 이름을 떨친 것,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인(庶人)으로 폐하라는 상소를 강요한 이이첨(李爾瞻)의 협박을 거절한 것 등 유희경의 평생 업적을 칭송하였다.

유희경은 천한 출신이면서도 사대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학식과 글재주를 드러내었으며 백대봉(白大鵬)과 함께 풍월향도(風月香徒)를 결성하여 위항 시사의 전범을 만들었다. 황택후는 유희경의 글재주뿐만 아니라 학식과 의리 또한 사대부에 버금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자부심은 당대를 대표하는 위항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강화되고 집단화되었는데 『화곡집』에 실린 황택후의 시에는 정후교, 정내교, 홍우필, 엄한봉 등과의 교류 양상이 확인된다. 정후교(鄭後僑, 1675~1755)는 김창흠으로부터 당시(唐詩)의 절묘함을 재현했다는 칭찬을 받은 위항시인으로서 일본 사행으로 시명(詩名)을 얻었다. 황택후의 시 가운데 정후교를 참된 은자에 견준 것이 있다.<sup>20)</sup> 홍우필(洪禹弼)은 당대 여항사결(閨巷四傑)의 한 명인데<sup>21)</sup> 중구(重九)에 홍우필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황택후의 시가 있다.<sup>22)</sup> 엄한봉(嚴漢朋)은 한석봉 이후 첫째라고 불린 서예가인데 황택후의 시에 “젊었을 적의 풍류를 잊을 수 없다”<sup>23)</sup>고 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林聲遠)은 술과 피리를 들고 종일 필운대에서 노닌 것으로 유명한데 황택후의 시에 “시사에서 노니는 것은 선배들의 일인데, 오늘날 옛 풍속이 남아 있음을 본다”<sup>24)</sup>는 구절이 있다.

20) 黃宅厚, <暮春雨中, 獨向粥雲臺, 聞鄭惠卿後僑已登山不遇>, 『華谷集』(총간 209) 권1, 13면: “塵囂雖近境幽森, 游子登臨已野心. 廢苑罵聲春寂寂, 古壇松樹晝陰陰. 無人對酒成孤醉, 冒雨看花且一吟. 谷口子眞遙憶汝, 中林何處可相尋?” ‘子眞’은 漢 鄭樸의 字이다. 谷口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에 ‘谷口子眞’이라 불렀다. 대장군 王鳳이 예를 갖추어 초빙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唐 杜甫의 <江雨有懷鄭典設> (『杜詩詳註』 권17)에 보이는 ‘谷口子眞正憶汝, 岸高濃滑限西東’를 용사하였다.

21) 『風謠續選』 권2: “禹弼, 字舜學, 號松隱, 禹澤弟, 才思清新俊逸…(金聲振)與洪禹弼, 吳萬珍, 閔鎮世, 相唱和, 時稱四傑.”

22) 黃宅厚, <九日寄洪舜學>, 『華谷集』(총간 209) 권1, 14면: “丹楓黃菊處, 難與故人期. 未必愁無酒, 猶應喜有詩. 入林行獨遍, 臨水坐還宜. 已送重陽去, 佳辰復幾時?”

23) 黃宅厚, <重陽, 與嚴道卿漢朋, 金處重廷大, 對月呼韻>, 위의 책, 14면: “送送年華了萬芳, 不知今日卽重陽. 雲開白月天無物, 樽泛黃花酒有光. 秋鷹飛來千里遠, 夜蟲鳴動一庭荒. 詩成歌闋諸朋醉, 少小風流不可忘.”

24) 黃宅厚, <臘月旣望, 夜集文君基周書室, 與林達甫聲遠共賦卽字>, 위의 책, 15면: “紅爐煖酒

황택후와 가장 우의가 깊었던 것은 여섯 살 위의 정내교(鄭來僑, 1681~1759)였다. 황택후의 작품 가운데 정내교와의 교유가 확인되는 것은 모두 네 편이다. 이들 작품에는 정내교와의 우정뿐만 아니라 그 인품과 문학에 대한 존경이 잘 드러나는데 일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장을 지녔어도 불우한 경우 많은데  
 높은 벼슬 자격 있는 친구를 슬퍼한다네.  
 헤어지고 겨울과 봄 지난 뒤인데도  
 자나 깨나 그리워한다네.  
 文章多不偶, 九命故人悲.  
 一別冬春後, 相思寤寐時.<sup>25)</sup>

- ② 달 뜬 추녀 저편에 정든 친구 멀리 떨어져 있어  
 먼지 자욱한 길에 좋은 소식 드물구나.  
 맑은 흥취가 문장에 가득하니  
 어찌 자질구레 따질 필요 있으랴?  
 月軒情友遠, 塵陌好音稀.  
 清趣文章足, 寧爲細論非?<sup>26)</sup>

①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정내교를 안타까워한 것이다. 정내교의 글재주를 칭송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퍼지 못하는 불우함을 탄식하였다. 자나 깨나 그리워한다는 표현에서 정내교에 대한 우정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에서 황택후는 정내교를 정든 친구라고 표현하였다. 정내교의 맑은 흥취와 인격에서 비롯한 문장을 칭송하고는 “다시 만나 문장에 대해 자세히 의론하고 싶다”며 이백을 그리워했던 두보의 말<sup>27)</sup>을 변안하여 그리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황택후는 당대를 대표하는 위항시인들과 두루 교유하였는데 그 장

拓高軒, 晴雪寒林月一痕. 生理不堪從俗事, 詩情務欲去陳言. 君應傲屋爲西嶽, 我亦移家來僻村. 更覺嘉平明日是, 歸謀荊布澆殘尊.”; “新雪西林歲色昏, 同人招月此傾尊. 寒夜向闌隣語靜, 壯心猶在醉歌喧. 清思策蹇探梅信, 狂欲呼蒼獵滿原. 詩社從遊前輩事, 尚看今日古風存.”

25) 黃宅厚, <聞鄭潤卿來僑, 貧病益甚, 將向原州, 有懷却寄>, 위의 책, 13면.

26) 黃宅厚, <懷鄭潤卿>, 위의 책, 14면.

27) 唐 杜甫, <春日憶李白>, 『杜詩詳註』 권1: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

소는 한양의 명승지였다.<sup>28)</sup> 필운대와 삼청동을 배경으로 한 시가 여럿 있으며 북한산 자락의 도화동에서 노닌 일을 기록한 <도화동기(桃花洞記)>도 남아 있다. 우대[上岱]로 알려진 한양 북쪽의 동촌과 서촌은 낙사 이래로 위항 시사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동촌의 시사는 김시모(金時模)가 주도하였고 서촌의 시사는 박영(朴垔)의 유괴정사(柳槐精舍)에서 주로 열렸는데 황택후는 백사(白社)로도 알려진 서사(西社)에 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택후와 교유한 엄한봉, 홍우필, 오만진, 문기주, 임성원 등이 서사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황택후는 필운대, 삼청동, 유괴정사 등에서 이들과 교유하며 산수에 대한 취향을 시로 읊었다.<sup>29)</sup>

삼청동에서 정내고, 홍우필과 함께 당시를 차운하여 짓다

푸른 솔 자라는 벼랑에 열린 안개 피어나고  
 높은 나무 그늘진 곳에 골짜기 새가 우는구나.  
 대은암에 숨어 산 이는 누구인가?  
 삼청동 안에서 삼청을 꿈꾸네.  
 날리는 꽃잎이 자리에 떨어지며 샘물 소리 요란하고  
 꽃다운 풀이 사람을 붙잡는데 석양빛이 밝구나.  
 고요히 앉으니 도성의 물색이 아득한데  
 깊은 숲이 지척이라 속세의 감정이 적어지네.  
 蒼松翠壁淡煙生, 喬木陰陰谷鳥鳴。  
 大隱巖邊誰大隱? 三清洞裏夢三清。  
 飄花點席泉流聒, 芳草留人夕照明。  
 靜坐渺然城市色, 深林咫尺少塵情。<sup>30)</sup>

28)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제13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87~152면.

29) 黃宅厚, <彌雲山亭, 寄洪舜舉禹弼, 吳汝慎萬珍>, 『華谷集』(총간 209) 권1, 14면: “遊筇逐逐趁良辰, 芳草連城淑景新。朋酒臺高山月夕, 晚風花發灑陽春。燕語入簾來面熟, 鶯聲近戶失眉嚬。襟期着處探時物, 覓得詩篇與故人。”; 黃宅厚, <朴君哲玲溪亭>, 같은 곳: “積翠清遊後, 深樽復此亭。聯翩互酬唱, 詩律有新聲。”; 黃宅厚, <贈朴君哲>, 같은 책, 19면: “生平羨彼蠢愚民, 不識不知笑且嚬。天下莫非趨利名, 世間誰是見機人? 行能孝友身名好, 義必誠忠議論真。上帝高臨星日燦, 元亨一理在陽春。”

30) 黃宅厚, <三清洞, 同鄭潤卿, 洪舜舉次唐詩>, 위의 책, 권1, 14면.

정내교, 홍우필과 함께 삼청동에서 노닐 때 지은 시이다. 수련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삼청동의 그윽한 경계를 묘사한 구절이다. 대은암은 남곤(南袞)이 살던 곳이다. 이행(李荇)과 박은(朴闇)이 남곤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남곤이 집에 없었다. 이에 이행은 남곤 집 근처의 바위에 ‘대은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들어 친구인 남곤을 희롱한 것이다.<sup>31)</sup>

‘삼청동’은 산청(山淸), 수청(水淸), 인청(人淸)의 뜻으로 풀기도 하지만 원래는 도교의 신인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을 모신 삼청전(三淸殿)이 있던 데서 유래하였다. 신선들이 노니는 곳과 같다는 뜻이다. 경련은 이런 유래를 지닌 삼청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한 구절이다. 한양 도성이 바로 옆이지만 깊은 숲속이라 마치 선계(仙界)에 든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마무리하였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기에 더욱 즐겁다는 속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늦가을 서원에서 정후교, 김정대, 오만진, 임성원과 함께 당시 읍시에 차운하다

문 안에는 산림의 취향인데  
문 앞에는 수레와 말 울음소리라네.  
기억나누나, 일찍이 짝지어 이끌며  
(날씨) 흐리고 맑은 것 따지지 않았지.  
시 모임과 술자리는 중구를 지키지 못했지만  
단풍과 국화 있어 그윽한 정취 만족스럽네.  
이웃 되어 사는 것 이루지 못하니  
뜬 세상에 내 뜻이 평화롭지 못하네.

門內山林趣, 門前車馬聲。  
憶曾携伴侶, 而不數陰晴。  
詩尊違九日, 楓菊愜幽情。  
卜隣終未就, 浮世意難平。<sup>32)</sup>

서사에 함께 참여하였던 정후교, 오만진, 임성원 등과 어울리며 지은 시이다. 날씨가 좋건 나쁘건 자주 어울려 다녔다고 하였으니 황택후가 젊은 시절에

31) 이에 대해서는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205면 참조.

32) 黃宅厚, <暮秋西園, 同鄭惠卿、金處重、吳汝愼、林達甫, 次唐律>, 『華谷集』(총간 209), 17면.

시사 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속세를 벗어난 곳이어서 오히려 찾는 이가 많다는 수련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경련은 중구에 시주(詩酒)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모이게 되어 기쁘다는 뜻이다. 시주(詩酒)로 그윽한 회포를 풀어내었다는 왕희지의 난정 고사<sup>33)</sup>를 변용하였다.

마지막에서는 서원 근처로 이사하여 벗들과 교유하며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황택후는 금위영 서리가 된 뒤 수행원으로 차출되어 여러 차례 지방을 다녀야 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여가를 내기 어려워 시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외직 활동과 사회적 성공

황택후의 문학 활동은 32세 이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집안이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병조의 서리가 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병조에 분경(紛競)의 폐단이 있어 부친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최창대가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칭송하였다. 황택후는 병조가 아닌 금위영의 서리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업무에 성실하고 태도가 직렴(直廉)하다는 칭송을 얻었다.

그러던 중 34세 때인 1720년 6월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1723년 37세 때 삼년상을 마친 후 호남에 안렴을 다녀오게 된다. 1726년(영조 2) 40세 때에는 상서 김시형(金始炯)을 따라 관북 지방을 염찰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황택후의 생애와 문학에서 분수령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양의 명승지에서 교유와 시사 활동에 몰두했던 문학 활동의 양상이 외방 순행의 과정에서 관료들과 수창하는 것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1728년(영조 4) 42세 때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3월 18일에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이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가 되어 토벌을 나갈 때 제일 먼저 황택후를 서기(書記)로 삼았다. 종사관은 조현명(趙顯命)과 박문수(朴文秀)였고 김수담(金壽聃), 이시주(李時柱), 문세장(文世章), 이진완(李震完) 등이 황택후와 동행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황택후는 오명항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33) 晋 王羲之, <蘭亭集序>, 『古文觀止』 권7: “一觴一詠, 亦足以暢敘幽情.”

오명항의 손자인 오태현(吳泰賢)이 『화곡집』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려는 관군들이 앓다뒤틀 반도의 머리를 잘라 바치자 황택후는 백성과 반란군이 뒤섞여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아뢰었다. 이에 오명항은 적도를 생포하는 이에게 상을 준다는 명령을 내렸고 그 덕택에 목숨을 건진 자가 많았다. 이러한 공으로 황택후는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 일등에 책록되었다. 황택후의 부모 또한 추증되었고 아들에게도 음직의 기회가 주어졌다.

경아전에 불과했던 황택후는 이인좌의 난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을 뿐더러 사대부 관료들도 갖기 어려운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인좌의 난 이후 조현명과 박문수, 그리고 오명항의 아들인 오언구(吳彦耆) 등과 불망계(不忘契)를 맺은 것이 단적인 증거가 된다. 이인좌의 난을 통해 발휘된 황택후의 능력은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안찰의 임무를 띤 관료들이나 군문(軍門)에서 앓다뒤틀 황택후를 기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황택후는 1730년(영조 6) 44세 때 김상성(金尙星)을 따라 기보(畿輔) 지역을 염찰하고 이때의 시를 모아 『기전록(畿甸錄)』을 묶었으나 없어지고 말았다. 1731년(영조 7) 45세 때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을 따라 관서를 안찰하였는데, 이때 지은 시가 『화곡집』 권4에 실려 있는 『관서수창록(關西酬唱錄)』이다. 이종성은 이항복의 5대손으로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소론 준론의 영수였던 인물이다.

1735년(영조 11) 49세 때에는 평안도절도사 조현명의 막료가 되었다. 1736년(영조 12) 50세 때에는 공을 인정받아 절충과 첨추의 지위를 얻었다. 이종성이 경기도관찰사가 되자 다시 황택후를 불러 재무와 군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진짜 사대부이니 우리가 많이 부끄럽다(其人秉心, 眞士大夫, 吾輩多愧)”고 칭송하였다. 이종성은 황택후가 죽은 뒤 아들 덕순을 가르쳤고 여러 곳에 벼슬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46년(영조 22) 6월 황택후의 부인 박씨가 졸하였을 때에도 후하게 부의하였다.

황택후는 마지막까지 외방에서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51세 때인 1737년(영조 13) 1월,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경기도 막부에 있던 황택후는 순상(巡相)을 따라 사신을 마중 나갔다가 도중에 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이 심해져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6월 4일에 체부동(體府洞)의

자택에서 즐하였다. 임종할 때 부인을 내보내고 두 아들만 옆에 있게 하였다고 한다.

부고를 들은 이태좌(李台佐)가 의복을 보내왔고 조현명과 박문수도 부의를 보냈다. 이태좌의 아들인 이종성은 영리(營吏)에게 호상(護喪)을 명하고 막객인 홍이기(洪以箕)를 시켜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많은 이들이 황택후를 알아주었으나 손수 제문을 지어줄 만큼 이종성이 제일 각별하게 여겼다고 한다.

황택후는 양주(楊州) 재궁동(宰宮洞)에 있는 선영 아래 묻혔다. 이 해에 부친은 한성부좌윤부총관에 추증되었고 모친은 정부인이 되었으며 황택후의 시가 『소대풍요』에 실리기도 하였다. 둘째 아들인 덕순이 유교를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 연보와 행장을 덧붙여 1794년에 『화곡집』을 간행하였는데 이종성의 후손인 이영로(李永老)가 발문을 썼다.

큰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덕순이 가업을 계승하였다. 황덕순은 내수사 서리로 있다가 사알이 되어 가업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아전이 중심이 된 구로회(九老會)에 참여함으로써 문학 활동 또한 계승하였다. 문학 적 성취 또한 아버지 에 버금간다고 칭송되었으니<sup>34)</sup> 여러모로 충실하게 가전을 계승한 셈이다.

젊은 시절 황택후는 학식과 글재주로 사대부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32세 서리가 된 이후로는 행정관리로서의 능력까지 인정받았다. 특히 소론 계열의 관료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황택후의 삶은 동시대의 위항인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세상과 불우하여 불평한 심사를 토로했던 위항문학의 특징이 황택후의 문학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산수예의 취향과 교유의 흥취를 위주로 전개되던 황택후의 문학이 외방에서의 체험과 사회적 성공을 통해 호방한 기운과 굳센 의지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34) 李得臣, 앞의 글: “余嘗喜君能詩, 今知其觚墨世業也. 凡爲詩難, 爲詩而得其妙難, 妙而父子並稱難. 今此收拾遺編, 顯揚先美, 尤豈非難又難耶!”

### III. 문학관과 문학적 특징

#### 1. 천기론과 진시론의 형상화

조선 후기 한시는 김창협(金昌協)과 김창흡(金昌翕) 등 일군의 사대부 문인들이 새로운 문학관을 제기하고 그 실천의 주체로서 홍세태 등의 중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창흡은 정두경(鄭斗卿) 등이 보여준 앞선 시기의 지나친 의고주의를 비판하며 ‘천기(天機)’와 ‘진시(眞詩)’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을 열고자 하였다. 이에 동의하며 홍세태 등 위항인들이 시사의 형태로 자신들의 문학 활동을 집단화함으로써 조선 후기 한문학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과거를 혁신하려는 새로운 문학관은 하늘이 만물에 공평하게 풍부한 이치를 은밀하지만 구체적으로 체현한 물상의 본질, 즉 ‘천기’를 간파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았다. 거짓과 인위가 없는 마음이 꾸밈없는 언어를 만나 ‘진시’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문학의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연역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시』, 한위의 고시, 성당의 시 등을 전범으로 제시하면서 그 본질인 진솔함을 배워야 한다는 학습 방법이 강조되었으며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과 표현만을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경직된 의고주의를 비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관은 어무적, 이달, 송익필, 유희경, 백대봉 등 천출 시인들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문학 활동이 위항인들의 집단적 문학 활동으로 확대되는 변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황택후의 문학 또한 이러한 문학사적 변모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그의 작품에 ‘천기’라는 말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 첫 번째 증거라 할 수 있다.

- ① 고요히 누우니 천기가 두루 있는데  
 낡은 사립에 다만 개가 짖을 뿐.  
 靜臥天機遍, 荒扉但吠<sup>35)</sup>

35) 黃宅厚, <山齋靜臥>, 『華谷集』(총간 209) 권1, 21면.

② 단단한 얼음과 쌓이는 싸락눈이 제각각 천기인데  
추운 기운 가득한 겨울 맞아 하나의 이치가 은미하다.  
氷堅霰集各天機 肅氣玄冬一理微<sup>36)</sup>

③ 오는 것을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며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천기를 즐긴다.  
來莫留去莫挽 遵天理樂天機<sup>37)</sup>

①에서는 천기를 세상에 두루 존재하는 현상이나 사물로 표현하였는데, 다른 시에도 이런 용례가 보인다.<sup>38)</sup> ②에서는 사물이 지닌 개별적 특징을 천기라 일컫고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치를 하나의 이치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천기는 이치가 은미하게 발현된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가리킨다. ③에서는 일리(一理)를 천리(天理)라 다르게 일컫고 천기를 즐긴다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였다. 주변의 사물을 통해 천기를 추체험하고 그 바탕인 천리를 깨우치는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천기와 천리를 성정(性情)과 결부하여 수신(修身)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천기론’은 앞선 시기의 백악시단과 낙사 등의 문학 활동에서 여러 번 강조된 것으로서 이것이 곧 ‘진시(眞詩)’를 판별하는 준거가 되었다.<sup>39)</sup>

### 시와 노래

시가 있으면 노래를 할 필요가 없고 노래가 있을 땐 시를 지을 필요가 없지.  
노래는 말을 길게 늘인 것이고 시는 뜻을 말한 것이라네.  
시가 좋을 때가 있고 노래가 좋을 때가 있지.  
화려한 잔치에 술 한 동이 있으면 호탕하게 노래하고  
옛 친구 천 리나 떨어져 있으면 그리는 마음 전하네.  
시 듣고 노래 듣는 것은 모두 나를 듣는 것인데

36) 黃宅厚, <霜雪>, 위의 책, 16면.

37) 黃宅厚, <送春行>, 위의 책, 20면.

38) 黃宅厚, <春日偶吟>, 위의 책, 15면: “心愜天機宜物態, 病量人事足吾情.”; 黃宅厚, <迎夏>, 같은 책, 21면: “天機滾滾物環廻, 這裏炎涼次第催.”

39) 김형술, 『조선 후기 천기론의 사상적 토대에 관한 고찰: 백악시단의 천기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35~72면.

술 있고 손님 있고 달 또한 있다네.  
 노래 들으니 마음 상쾌하고 시를 논하니 흥이 멎지 않네.  
 나는 시를 좋아하고 그대는 노래를 잘하니  
 그대는 시를 듣고 나는 노래를 듣는다네.  
 마음에서 나타난 것 아님이 없으니  
 마땅히 많은 뜻 지니고 있으리라.  
 나더러 노래하고 시 짓지 않게 한다면 쓸쓸히 무엇을 하란 말인가?  
 有詩莫爲歌, 有歌莫爲詩. 歌永言詩言志, 詩有時歌有時.  
 華筵一樽發浩唱, 故人千里寄相思. 聽詩聽歌皆聽我, 有酒有客兼有月.  
 聞歌心已快, 論詩興不歇. 我好詩君能歌, 君聽詩我聽歌.  
 不是無心發, 猶應有意多. 若不使我歌且詩, 寥寥奈爾何?<sup>40)</sup>

시와 노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문학관을 드러낸 작품이다. 상황에 따라 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노래가 적합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흥겨운 잔치에서는 노래가 좋고 헤어진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 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시와 노래를 선택하지만 인식과 감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와 노래는 둘 다 필요한 매체가 된다. “歌永言, 詩言志”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인용한 뒤 ‘心’과 ‘興’을 들어 시와 노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작위나 가공을 비판하고 천기의 자연스러운 발로를 강조한 천기론 및 진시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천기에 대한 관심은 주변의 경물과 사물을 소재로 삼은 황택후의 시에 두드러진다. 황택후의 작품은 167편뿐이지만 다수의 영물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매화, 국화, 파리, 말, 소 등 동식물뿐만 아니라 해, 달, 눈, 서리, 구름 등의 자연현상 또한 소재로 삼아 다양한 성격의 영물시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영물시는 역사가 오랜 만큼 새로운 내용과 미감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 천기는 은미하게 구현된 것이어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좋은 영물시를 짓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40) 黃宅厚, <詩歌行>, 『華谷集』(충간209) 권1, 20면.

- ① 온기 찾아 도망치는 몸은 나무처럼 뻗뻗하고  
공기에 닿아 움츠린 날개는 재와 같이 차갑구나.  
向煖逃身強似木, 當空貼翼冷如灰.<sup>41)</sup>
- ② 목동이 끌고 가려 하면 발걸음이 느려지고  
송아지를 활을 땀 혀가 부드러워지네.  
牧豎牽時蹄獨倦, 犢兒舐處舌方柔.<sup>42)</sup>
- ③ 길조를 나타내던 토끼의 정원에 펼 펼 휘날렸고  
원통함을 호소하던 연나라 감옥에 갑자기 날렸지.  
呈瑞兎園飄颺颺, 訴冤燕獄忽飛飛.<sup>43)</sup>

위의 구절들은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 새로운 시각을 의도한 것으로서 그 결과 표현에서 새로움을 얻은 경우로 볼 수 있다. ①은 가을날의 파리를 묘사한 것이다. 추위에 움츠린 파리의 모습을 나무처럼 단단하다고 표현하였고 한기 때문에 몸뚱이에 바짝 붙인 날개의 모습을 재처럼 차갑다고 표현하였다. 파리의 연약한 몸을 나무에 비유한 것은 과장에 해당하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으며 바스러질 듯 연약해진 파리의 날개를 흠날리는 재처럼 표현한 것도 교묘하다. 벌이 드는 기둥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모습과 날갯짓조차 작아진 파리의 힘없는 모습을 묘사한 데서 세밀한 관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함께 새로운 시각이 확인되는 구절이다. 소치기에 지쳐 짐으로 돌아가고픈 아이가 재촉을 하지만 소는 여전히 풀을 뜯으며 바람을 쐬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고삐를 당기는 아이의 다급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더디게 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완고한 소도 자식을 대할 때면 한없이 유순해진다. 새끼를 활을 때면 그 헛바닥이 참으로 부드럽다고 표현하였으니, 소의 길고 미끄러운 혀를 묘사한 것이지만 자식을 대하는 어미의 자애로움 또한 느낄 수 있게 한다.

41) 黃宅厚, 위의 책, <秋蠅>의 경련, 16면.

42) 黃宅厚, 위의 책, <牛>의 합련, 16면.

43) 黃宅厚, 위의 책, <霜雪>의 합련, 16면.

③은 서리와 눈을 읊은 구절인데, 용사를 통하여 교묘함을 꾀하였다. 토원(兎園)은 한(漢) 양효왕(梁孝王)의 정원인데 양원(梁園)이라고도 한다. 눈에 덮인 모습이 아름다워 변경팔경(汴京八景)의 하나로 ‘양원설제(梁園雪霽)’를 손꼽는다. 이 구절은 사혜련(謝惠連)의 <설부(雪賦)>와 연관된다. <설부>는 양효왕이 토원에 있을 때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문객(門客)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추양(鄒陽)에게 부(賦)와 가(歌)를 짓게 하고 자신도 노래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출구는 아름다운 눈이 날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된다.

대구는 전국시대 음양가인 추연(鄒衍)의 고사를 가져다 쓴 것이다. 추연은 연(燕) 혜왕(惠王)에게 충성을 다했으나 오히려 혜왕은 참언을 믿고 추연을 옥에 가두고 만다. 이에 추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자 5월인데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sup>44)</sup> 따라서 이 구절은 서리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얽힌 고사를 활용하고 동물의 이름으로 대우를 맞춘 것에서 공교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에 체현된 천기를 경험하는 것은 황택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천리를 체득하여 수신의 바탕으로 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상에 대한 묘사 속에 자신의 깨달음을 함축하여야 진실한 시에 가깝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의도가 형상화된 작품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선달의 매화

사람들은 매화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다만 그 이름만 사랑하니  
 향기를 모아도 태반은 진실한 정취를 잃어버린다네.  
 공허한 말 모아 교묘히 작품을 이루고  
 교묘히 재주 다뉘 거짓으로 가지를 꾸미네.  
 해가 저물면 하늘 따라 눈 빛깔 폼없다가  
 봄이 잠기면 땅 또한 우렛소리 보내네.  
 이와 같은 꽃의 녀을 바야흐로 초대하니  
 또렷한 그림자 그윽한 향기에 껴진한 경지 생기네.

44) 『初學記·天部下』 권2 “鄒衍盡忠於燕惠王，惠王信譖而繫之。鄒子仰天而哭，正夏而天爲之降霜。”；漢 王充，『論衡·感虛』：“鄒衍無罪，見拘於燕。當夏五月，仰天而歎，天爲隕霜。”

人不愛梅但愛名，儲香太半失真情。  
巧成篇軸空言集，假飾植條妙技爭。  
歲暮天然懷雪色，春潛地亦送雷聲。  
花魂如此方招得，疎影幽香逼境生。<sup>45)</sup>

선달의 매화는 천기가 발현된 사물이지만 그 이름만으로는 천기를 체험할 수 없다. 매화 향기를 사랑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매화의 진실한 본질을 얻을 수 없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말로 매화를 칭송하는 것은 잔재주를 부려 거짓으로 겉모습만 꾸미는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다.

세밀의 매화는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지만 겨울을 상징하는 눈의 빗깔을 띤다. 『易·復』은 땅 아래 우레가 있는 ‘地雷’의 모양이니 땅속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sup>46)</sup> 이처럼 때때로 겉모습과 본질은 서로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한기 속에 은미하게 숨어 있는 봄기운이 납매(臘梅)의 본질임을 깨달은 바탕 위에서 꽃 그림자와 향기를 맞이해야만 진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정이라는 말이 언급되진 않았으나 천기에 대한 체험을 인식과 실천의 바탕으로 인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逼境’은 ‘眞境’과 동계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천한 노비의 질박한 인품을 ‘天真’이라 표현한 다른 시<sup>47)</sup>를 보면 황택후의 사상 전반이 천기론과 닮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천기론과 진시론의 기초를 마련한 김창흡은 과거의 시문을 문제 의식 없이 모방한 전대의 의고적인 시풍을 극렬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과거의 문학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 김창흡이 비판한 것은 『시』와 한·위·성당의 한시가 지닌 진정성을 도외시한 채 그 형식과 표현만을 답습하는 폐단이었다. 따라서 진시를 앞세우는 의견이 반드시 의고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 문학의 진정성을 회복한다는 ‘복고’의 성취는 ‘의고’라는 학습과 단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의고는 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인정되었다.

이는 황택후의 작품 가운데 영물시와 함께 의고시 또한 다수 존재하는 양

45) 黃宅厚, <詠臘梅>, 『華谷集』(총간 209) 권1, 15면.

46) 『易·復』: “象曰: ‘雷在地中, 復. 先王以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

47) 黃宅厚, <渭原客舍, 聞道奴沒於江界, 有感>, 『華谷集』(총간 209) 권3, 32면: “故里尋常識, 他鄉骨肉親. 關關同旅旣, 質林見天真.”

상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채련곡(採蓮曲)>, <출새곡(出塞曲)>, <입새곡(入塞曲)>, <새하곡(塞下曲)>, <소년행(少年行)>, <공자행(公子行)>, <장신궁(長信宮)>, <반첩여(班婕妤)>, <소군원(昭君怨)> 등 황택후가 여럿의 의고시를 창작한 것은 천기를 강조한 문학적 태도와 모순되지 않는다. 천기를 온전히 표현해냈다고 평가되는 전범을 익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의고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고의 가치를 가장 잘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성당의 한시에서도 악부와 민가의 풍격을 지향한 의고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의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냐는 것인데, 황택후가 어린 시절 당시를 배웠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 연 따는 노래

흰 손으로 가벼운 노를 희롱하며  
 꽃에 이끌려 이파리 옆에 배를 멈추네.  
 큰 열매를 탐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연꽃의 향기를 사랑한다네.  
 素手弄輕楫, 牽花住葉傍。  
 不須耽子大, 猶自愛蓮香。<sup>48)</sup>

악부풍을 의도한 의고시이다. 채련(采蓮)을 소재로 한 의고시는 연을 따는 수고로움이나 청춘남녀의 사랑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素手’와 ‘輕楫’이라는 표현에서 이 시의 주인공이 일감의 하나로 채련을 하는 농가의 처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양가의 규수로 보이는 주인공은 아름다운 연꽃과 그 향기를 따라 배를 모는 중이다. 이윽고 향기에 이끌려 배를 대고 연꽃의 자태를 완상한다.

주인공인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대상으로 연꽃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함축된 연꽃의 상징성이 이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통 연꽃에 대한 애정을 이성에 대한 호기심, 사랑에 대한 동경 등으로 해석하지만, 그럴 경우 이 시에서는 연꽃이 남성을 가리키는 셈이 되어 의경이 부자연

48) 黃宅厚, <採蓮曲>, 위의 책, 권1, 18면.

스러워진다. 이 시의 연꽃이 지닌 상징성은 백거이가 <애련설(愛蓮說)>에서 부여한 상징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아름다움은 ‘천기’를 의미하고 멀리까지 퍼지는 연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연꽃을 수신(修身)의 상징으로 표현한 이 시는 악부시가 아닌 설리시(說理詩)의 성격을 지닌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도 대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덕성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앞서 살펴본 천기론 및 진시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황택후가 의고를 통해 도달하려 했던 목적이 진시에 도달하는 것, 즉 과거의 참됨을 회복하려는 복고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황택후와 인연을 맺었던 최창대와 이하곤의 문학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창대는 『시』를 전범으로 삼으면서 일체의 조탁을 비판하였다. 산문은 진한과 당송의 고문을 모범으로 삼았고 시문 모두에서 질박(質朴)과 간과(簡寡)를 중요시했다.<sup>49)</sup> 이하곤은 대상에 대한 참된 묘사를 강조하면서 시화(詩畫)의 핵심이 ‘寫眞’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위, 동진, 성당의 시인들에 근본을 두었다며 김창흡과 홍세태를 칭송하기도 하였다.<sup>50)</sup> 황택후, 최창대, 이하곤의 문학관과 창작 활동에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점은 당대 위항문학의 사상적 근거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려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2. 산수 취향과 의기(意氣)의 표출

조선 후기 위항문학은 도성과 그 주변의 명승지에서 친우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흥취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신분적 제약으로 인한 불평지심을 비애와 강개의 정서로 표출한 것도 공통점의 하나로 손꼽힌

49) 김영주, 『昆命 崔昌大의 修辭論 研究』, 『동방한문학』 제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115~139면.

50) 李夏坤, <南行集序>, 『頭陀草』(총간 191) 冊十七, 533면: “詩, 無論聲調高下、字句工拙, 其寫境也眞, 道情也實, 斯可謂之天下之好詩也. 李、杜之後, 如白樂天、蘓子瞻、陸務觀諸人之詩, 其聲調未必盡高, 字句未必盡工, 然亦未嘗寫不眞之境, 道不實之情. 使人讀之, 眞若身履其地而面承其言也, 蓋亦天下之好詩也. 故余嘗曰: ‘作詩正如畫工之寫眞.’ 一毛一髮, 無不肖似, 然後方可謂之寫其人矣. 苟或一毛一髮不能肖似, 則雖極丹青之工, 而神情便不相關, 豈可謂之寫其人乎!” 이하곤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최계남, 『澹軒 李夏坤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205~246면 참조.

다. 위항문학의 내질을 규정하는 ‘홍취’와 ‘비분’은 홍세태, 정내교를 거쳐 천수경, 장훈으로 이어지는 위항문학의 역사에서 연속되는 특징으로 지적되곤 한다. 산수를 배경으로 홍취를 표현하는 경향은 황택후의 문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8세 때 지은 다음 시에서 산수에 대한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계촌에서 일찍 일어나 즉석에서 짓다

숨어 사는 이 몸 꿈에서 깨니 서쪽 봉우리에 달 걸렸는데  
 각건 높이 쓰고 앞산으로 걸음을 나서네.  
 은은한 종소리는 어느 절에서 나는 건가?  
 봄 맞은 옛 누대에 어둑어둑 꽃이 피었구나.  
 幽人夢罷西峰月, 步出山前岸角巾。  
 隱隱鍾來何處寺? 冥冥花發古臺春。<sup>51)</sup>

무계촌(武溪村)은 지금의 종로구 부암동에 있던 마을이다. 계곡의 아름다움이 무릉도원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자하문 밖 서쪽 골짜기에 있었는데 안평대군이 무계정사(武溪精舍)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번잡함을 피해 숨어 사는 사람의 일상과 정취를 잘 표현하였기에 『소대풍요』에도 선발되었다.

‘角巾’은 은자가 쓰는 두건이고 ‘岸’은 이마가 드러나도록 모자를 높게 쓴다는 뜻이다. 둘 다 속세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킨다. 달이 저물어가는 새벽에 은자의 차림새를 갖추고 앞산으로 산보를 나간다. 후반부는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경물을 묘사한 것이다. 새로운 아침을 맞아 절간에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리고 인적이 사라진 묵은 누대 근처에서 그윽한 꽃향기가 풍긴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눈으로 꽃을 볼 수는 없으나 향기를 통해 꽃이 피었음을 알겠다는 뜻이다.

사람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 피어난 꽃은 시인 자신에게만 허락된 대상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가짐을 함축한 것이다. 첩자인 ‘隱隱’과 ‘冥冥’으로 대를 이루어 도연명이 보여준 맑고 상쾌한 은일의 정서를 되살리려 한 숨씨가 돋보인다. 그늘 속에 핀 꽃을 불우로 인한 비애로 연결 짓지 않고 담백한 격조로 마무리한 데서 불평지음과 거리가

51) 黃宅厚, <武溪村早起卽事>, 앞의 책, 권1, 13면.

먼 황택후 한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산수를 배경으로 한 흥취의 발로는 황택후의 젊은 시절 작품에 주로 나타난다. 32세 때 경아전에 나아간 뒤로는 어사나 관찰사를 수행하며 지방에서 활동하였기에 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황택후의 문학에는 세상과의 불우로 인한 비애와 탄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인좌의 난에 공을 세워 공신에 책봉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문인 관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황택후는 불평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외방에서의 활동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대부분 안찰을 맡은 상관과 주고받은 것들이며 호기(豪氣)와 의기(意氣)를 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석왕사에서 차운하다

깨끗한 샘물과 흰 바위가 절간을 둘러쌌는데  
당시에 스님들이 성령을 기르신 곳이라네.  
천 리 멀리서 온 나그네가 옛 자취를 찾으니  
몇 층의 단과 불경만이 남아 있네.  
우뚝한 산은 상서로워 구름이 벽에 머무르고  
모임에서의 오묘한 말씀에 달빛이 뜰에 가득하네.  
절간에서 하룻밤 머물며 마음이 넓어졌으니  
변방에서 오래도록 떠도는 신세를 어찌 한탄하라!  
清泉白石繞禪扃, 開士當年養性靈  
千里客來尋舊蹟, 數層壇在見遺經  
碭山瑞色雲留壁, 蓮社玄談月滿庭  
信宿閑房懷抱曠, 關河肯歎久漂零!<sup>52)</sup>

『소대풍요』에 뽑힌 시로서 40세 때 관복을 안찰할 때의 작품이다. 석왕사(釋王寺)는 강원도 설봉산 기슭에 있는 절이다. 이성계가 무너진 집에서 서까래 세 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무학대사가 왕이 될 꿈이라 풀이하고 석왕사를 세우라고 권하였다.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그 말을 좇아 절을 짓고 ‘석왕사’라는 액호(額號)를 내렸다고 한다.<sup>53)</sup>

52) 黃宅厚, <釋王寺次韻>, 위의 책, 권1, 22면.

수련에서는 절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와 고승의 자취를 서술하였다. ‘開士’는 스스로 깨우침을 열고 다른 이의 신심(信心)을 열어주는 고승을 가리킨다. 함련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이 절에서 노닐었고 무학대사가 갈무리한 불경이 이 절에 남아 있음을 표현하였다.<sup>54)</sup>

경련의 출구는 큰 바위가 많은 산봉우리에 상서로운 구름이 머물러 있고 그 빛깔이 절간의 벽에까지 드리웠다는 뜻이다. ‘백련사(白蓮社)’의 줄임말인 ‘蓮社’는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고승이었던 진(晉) 혜원(慧遠)이 승속(僧俗)을 아울러 만든 정토종의 최초 결사(結社)이다. 절간의 스님들과 이를 방문한 속인(俗人), 즉 시인 자신이 어울려 오묘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달빛이 뜰에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출구의 상서로운 구름은 절간의 영험함을 상징하고 대구의 달빛은 스님들의 지혜를 상징한다. 이러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니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도는 신세를 한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미련의 뜻이다.

깊은 산속의 외딴 절에서 맞이하는 밤을 배경으로 삼으면 객수(客愁)와 사향(思鄉)을 주제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시는 어둠을 밝히는 월색(月色)과 해탈한 노승의 현담(玄談)을 통해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평지심을 매미나 귀뚜라미의 울음으로 표현했던 여타 위항인들의 시와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 적유령

층층 첩첩 산마루가 하늘과 닿아 있어  
 봄이 한창인데도 꼭대기에 눈과 서리가 덮였구나.  
 어두운 골짜기라 꿈이나 범의 소굴 있을까 싶은데  
 봉우리를 빠져나오니 몸이 북두와 견우 곁이로구나.  
 드넓은 평원에 슬픈 바람 불면 자주 칼을 바라보고  
 높은 초소에 해가 지면 하나같이 고향을 바라보네.

53) 休靜, <雪峯山釋王寺記>: “祖一夕假寐, 夢見萬家鷄一時鳴, 又聞千家砧一時鳴, 又入破屋中負三椽而出, 又見落花落鏡, 忽驚寤, 不知夢兆之吉凶鬱鬱…僧改容曰: ‘此皆將作君王之夢, 非常夢也.’ 曰: ‘萬家鷄聲者, 賀高貴位也. 千家砧聲者, 報御近當也. 落花何無實, 落鏡豈無聲? 負三椽者乃王字也. 花鏡亦促王業之夢也…一片地建一刹, 名曰釋王寺, 至佳至佳.”

54) 제목 아래의 주에 “寺有太祖大王潛邸時遊賞舊蹟及無學山人藏經.”이라 하였다.

우습다, 글쟁이면서도 담력과 기개를 부려  
 변경을 지킬 뜻으로 창을 베고 누었구나.  
 層巒疊嶂遍穹蒼，絕頂深春覆雪霜。  
 暗谷心猜熊虎窟，中峰身出斗牛傍。  
 悲風大漠頻看劍，落日危譙一望鄉。  
 却笑詞人猶膽氣，枕戈志欲守邊疆。<sup>55)</sup>

평안북도 회천과 강계 사이에 있는 적유령을 읊은 시이다. 수련은 적유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구절이다. 함련에서는 적유령의 험난한 지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어두컴컴한 계곡이 어찌나 깊은지 분명 꿈이나 범이 살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런 계곡을 빠져 나와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북두성과 견우성이 옆에 있는 듯 가깝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보인 ‘하늘에 닿아 있다’는 표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경련은 변방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표현한 것이다. 드넓은 평원에 슬픈 바람이 불어올 때면 오랑캐가 쳐들어올 징조가 아닌가 싶어 허리에 찬 칼을 들여다보게 된다. 석양이 비치는 망루에서 보초를 설 때면 언제나 고향이 있는 남쪽을 바라보게 된다.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고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적인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미련은 시인 자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경어진 출신으로서 문서를 처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고 여유가 있으면 시를 지어 회포를 푸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담력과 기개가 필요한 변방의 지사(志士)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처지를 남이 비웃을까 걱정하면서도 황택후는 의기를 잃지 않는다. “창을 베고 눕는다”에서 그러한 의지가 단정적으로 표출된다. 기운 넘치는 묘사를 서두에 배치하고 고향 생각에 나약해지려는 마음으로 시상을 전환하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의기를 함축함으로써 감정의 변화를 진솔하게 서술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꾸밈이 없이 진솔하며 기운이 있고 소리가 높다는 평가<sup>56)</sup>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55) 황택후, <狄隴嶺>, 『華谷集』(총간 209) 권3, 31면.

56) 吳泰賢, <華谷集序>, 위의 책, 7면: “其爲詩, 緣情隨境, 直寫成章. 氣之激而波濤疊起, 聲之高

#### IV. 결론

황택후는 조선 후기 중인으로서 모범이라고 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사대부 자체처럼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일찍부터 글재주를 발휘하였다. 사대부들의 칭찬을 받고 위향인들과 교류하며 시사에 참여하는 한편 뛰어난 행정 능력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위치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황택후의 문학을 통해 당시의 위향인들이 사대부 문인들에 필적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들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어떠한지, 그 사상적 근거로서 천기론과 진시론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사대부들의 인정과 지원 아래 위향인들이 문단의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근거인 천기론과 진시론을 작품으로 구체화한 양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대부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사회적 성공으로 인하여 황택후의 문학은 여타의 위향문학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 사대부들의 인정과 지원이 위향인들의 신분적 불평등을 해소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통의 위향문학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의식과 함께 불우로 인한 비애의 정조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황택후의 문학에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위향문학의 역사적 전개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점을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황택후는 홍세태나 정내교처럼 시 창작에 평생의 힘을 쏟지는 않았으며 시인으로서의 성취만큼이나 관리로서의 정치적 행적 또한 분명하게 보여준다. 황택후가 관계를 맺은 최창대, 이하곤, 오명항, 오광운, 조문명, 이종성 등이 모두 소론 인사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봉당 정치의 폐단이 극심했던 시대에 특정 정파의 인물들과 교류했다는 것은 위향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조선 후기 정치 권력의 변천이 일정 정도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정치 권력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단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유효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姜浚欽, 『三溟詩話』(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소명출판, 2012.  
高時彦 編, 『昭代風謠』, 아세아문화사, 1980.  
千壽慶 編, 『風謠續選』, 아세아문화사, 1980.  
李夏坤, 『頭陀草』(한국문집총간191), 한국고전번역원.  
黃宅厚, 『華谷集』(한국문집총간209), 한국고전번역원.

###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구자균, 『朝鮮平民文學史』, 文潮社, 1948.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정후수, 『朝鮮後期 中人文學 研究』, 깊은샘, 1990.  
차용주, 『한국 위항문학 작가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천병식, 『朝鮮後期 委巷詩社 研究』, 國學資料院, 1991.  
허경진, 『조선 위항문학사』, 태학사, 1997.

### 3. 논문

- 김영주, 「昆侖 崔昌大의 修辭論 研究」, 『동방한문학』 제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115~139면.  
김형술, 「조선 후기 천기론의 사상적 토대에 관한 고찰: 백악시단의 천기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제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35~72면.  
성범중, 「昆侖 崔昌大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5~40면.  
안대회, 「조선 후기 여항문학의 성격과 지향」, 『漢文學報』 제29집, 우리한문학회, 2013, 273~298면.  
최재남, 「澹軒 李夏坤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10, 205~246면.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제13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87~152면.

## A Study on Sino-Korean Poetry of Hwang Taek-hu

Gu, Bon-hyeon

Hwang Taek-hu[黃宅厚] is a poet from Gyeongjae[京衙前] family who was active in the year of King Sukjong and Yeongjo in Joseon dynasty. As a young man, he kept companies with famous literary men such as Choi Chang-dae[崔昌大] and I Ha-gon[李夏坤],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association of poetry, such as Seosa[西社]. Ever since becoming a petty official, he has been working in provinces by performing secretary of local jurisdiction all the time.

Since he was from a family that had lived through the generations of Gyeongjae, Hwang Taek-hu was able to receive educat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nobility family from a young age, and through this, he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oets of the nobility. Based on the ability of literacy and administration, it was possible for capital's petty officials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support of the bureaucrats and civil officers and thus they could take the lead of the literary world on behalf of the medical officers and official interpreters.

It seems that Cheongiron[天機論] and Jinsiron[眞詩論], which were raised around by Gim Chang-heup[金昌翕] and Hong Se-tae[洪世泰], who were one generation ahead of Hwang Taek-hu, became the ideological grounds for the activation of Wihang[委巷] literature. The influence of Cheongiron and Jinsiron appears in the literature of Choi Chang-dae and I Ha-gon who associated with Hwang Taek-hu, and is confirmed in the literature of Hwang Taek-hu.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Yeongmul poetry[詠物詩] of Hwang Taek-hu, the tendency to awaken natural laws through observation of surrounding objects and attempt to use it as the basis for moral cultivation is well shown. In the effort to express the honest feelings and perceptions that are created in the encounter with things, we can confirm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aimed at real poetry. To restore the value of real poetry, it was emphasized that practice steadily on imitating classical style, this tendency is also seen in the literature of Hwang Taek-hu.

On the other hand, in the literature of Hwang Taek-hu, there are no expressions of unpleasantness and discomfort that are cited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f middle class men. This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ocial success of Hwang Taek-hu with the recognition of the high officials. Because of his activities in the outside, which occupy most of his life, he tended to consciously emphasize his willingness and vigor.

keywords: Hwagok[華谷], Hwang Taek-hu[黃宅厚], Sino-Korean Poetry, Wihang [委巷], Yeohang[閭巷], People of Middle Class[中人], The Profound Secret of Nature[天機], Real Poetry, Restoration[復古]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
--